SOCIETY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올해는 무사히"…반복되는 풍수해 대비 총력전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팔색조' 광주 북구 한새봉 일대서 포착

광주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4호인 팔색조가 발견됐다.

1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북구 한새봉 일대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팔색조가 광주도시새동시센서스 시민조사팀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팔색조는 몸길이 약 18㎝에 이르며, 7가지 무지개색 깃털을 가진 화려한 외형으로 '숲 속의 보석'이라 불리는 여름철새다.

녹색의 등과 날개, 코발트색 어깨와 위꼬리깃, 검정색 꽁지, 진홍색의 아랫배와 아래꽁지덮깃, 그리고 흰색의 멱과 날개의 얼룩무늬가 특징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보르네오섬 등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번식하며, 국내에서는 제주 한라산 남사면, 거제도 학동, 전남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희귀한 여름새다.

촬영된 영상에는 팔색조 한 개체가 지렁이를 물고 있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후 팔색조는 인근 수풀로 사라져, 이는 해당 지역에 둥지를 틀고 육추(양육)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

자치구-경찰청-소방, 취약시설 현장점검·협력체계 구축

감시 사각지대 최소화…드론·GIS 등 첨단기술 시스템도

광주·전남 지역에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자치구와 경찰, 소방 등 재난 유관기관들이 풍수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장마는 평년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빈번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된다.

19일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전북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20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의 예보대로 장마가 시작될 경우 평년(6월 23일)보다 3일 정도 빠른 수준이다.

이에 각 자치구는 올여름 정체전선의 북상과 함께 국지성 폭우, 폭염이 잦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복합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서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구는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소하천 등 여름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마쳤다.

또 수해 발생 시 현장에서 필요한 수방자재를 점검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서구는 GIS(지리 정보 체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방재시스템을 운영하며 재난 감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섰다.

또 재난 발생 상황, 피해·복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호우 등에 선제 대응에 나서 구민 피해를 줄인다.

서구 내 건설공사장과 우기 대비 재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마쳤다.

남구는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 행정을 강화했다.

과거 침수 사례 등을 분석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50여명으로 구성된 침수취약지역 현장 운영반을 운영하며 남구 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순찰과 침수예방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인명보호 최우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4개 방향 7개 과제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효과적인 재난 예방을 위해 AI 및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침수 취약지역 64개소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난 상황이 예상될 때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소관 부서와 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초동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광산구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반복적인 점검과 취약시설에 대한 보강에 나섰다.

특히 24시간 재난 상황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개정해 구청장과 부구청장 직접 보고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광주경찰청도 지역 취약지역 320개소에 대해 면밀한 사전점검과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소방 등 재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집중호우 재난대비에 나섰다

이는 2023년 오송참사 이후 지하공간 침수를 막기 위해 4인 담당제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를 맞아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시설 강화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국정 연계·통합 돌봄 강화' 광주 남구, 조직 개편

광주 남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연계와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기능을 강화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정원 변동 없이 기존 6국·2실·2관·29과·123팀 체계를 6국·2실·2관·30과·124팀으로 개편된다.

남구는 희망복지국 내 통합돌봄과와 돌봄정책팀을 신설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지역 돌봄 통합지원과 관련한 법률에 발맞춘다.

신설 과를 통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가내 의료·돌봄서비스를 대표로 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한 새 정부 공약에 따라 기존 열린행복과를 민주평화인권과로 개편한다.

총무과 소속인 남북교류협력팀을 민주평화인권과 산하로 옮겨 남북 교류 활성화·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지자체의 역할을 더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18일 광주 서구 유덕동 '천원국시 10호점' 개소식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주민들이 국수를 시식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광주 서구, '1000그릇' 따뜻한 나눔 실현한다

천원국시 10호점 유덕동에 개소…복지·일자리 선순환

복지와 일자리 선순환 모델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 서구 천원국시 10호점이 문을 열었다.

서구는 18일 유덕동 칠성로에 '천원국시' 10호점을 개소함에 따라 천원국시 10개 매장에서 하루에 국수 1000그릇을 1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판매하는 또 하나의 복지모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천원국시'는 어르신, 임산부, 취약계층 등에게 우리밀 국수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다.

매장당 하루 100그릇씩 한정 판매하는 '천원국시'는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촉진, 생활 속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1석 3조의 가치를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1호점을 시작으로 2년여만에 10호점까지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 총 415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복지와 고용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10호점은 유덕동의 BI(Brand Identity)인 '아이가 미소 짓는 마을'에 맞춰 '올 키즈존(All Kids Zone)'을 콘셉트로 조성됐다.

18세 이하 아동은 물론, 6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7세 미만 아동과 동반 1인도 국수를 1000원에 제공 받을 수 있어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더불어 주민과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식자재를 기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냉장고'도 함께 운영된다.

이는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생활형 공유 복지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하루에 1000그릇 판매되는 천원국시는 단순한 복지 실적이 아니라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지만 확산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다"며 "천원국시와 함께 다양한 1000원 정책을 추진하며 착한복지의 보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국내 최대 모험시설 '어드벤처 챌린지93'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원, 학생 수련활동 등 지원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원은 18일 이정선 교육감과 명진 광주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드벤처 챌린지93' 개장식을 개최했다.

'어드벤처 챌린지93'은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준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모험활동시설이다. 공중 자전거 등 다양한 난이도의 도전과제 93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롤러코스터와 집라인을 결합한 253m 규모의 곡선형 하강시설과 18m 높이의 스카이점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시설이기도 하다.

광주학생교육원은 이번 시설을 활용해 광주지역 학생의 수련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수련은 지난 4월 광주서광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7일까지 총 85기에 걸쳐 진행된다. 수련활동은 1박2일 또는 2박3일로 실시되며, 올해 연말까지 8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이정선 교육감은 "'어드벤처 챌린지93'을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과 성취감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영사기 교체한 광주극장 27일부터 '4K 특별상영회'

최신형 디지털 영사기로 교체한 광주극장이 오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4K 시네마 광주' 특별상영회를 마련했다.

1935년 개관한 광주극장은 오랜 세월 한국 영화사와 함께했지만 최근 영사기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인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2억 2000만원을 투입, 기존 2K(2000픽스) 영사기와 스크린을 최신식 4K(4000픽스)로 교체했다. 이를 기념하는 특별상영회 '4K 시네마 광주'가 2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열린다.

특별 상영 기간 중 광주극장 지정기부자를 대상으로 무료 관람의 특전도 제공한다. 28일에는 광주극장 지정기부자를 초청해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를 관람 후 이명세 감독과 함께하는 GV(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